

## 배심 설시문 이해도에 대한 사전검사 및 사전설시의 영향\*

한 유 화<sup>†</sup>

충북대학교 인간심리연구소

박 광 배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법과인간행동연구소

배심 설시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내려지는 유무죄 판단에 대한 우려는 배심원들의 설시문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배심 설시문 이해도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전설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총 네 개의 실험조건(통제, 사전검사, 사전설시와 검사및설시 조건)에 137명의 참가자가 무선향당 되었으며, 이해도 분석을 위해 실험 조건에 따른 이해도 점수와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 SDT)의 측정치들을 비교하였다. 실험처치는 재판 시나리오가 제시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재판 시나리오 제시 후에는 모든 조건에서 판사 설시문을 제공하고,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배심 설시문의 내용 중 ‘무죄추정’과 ‘증거’ 이해도에 대해서는 사전검사와 사전설시 각각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옳게 기술된 문항에 옳은 응답을 하는 비율과 민감도는 사전검사가 제공됨에 따라 증가하였고, 반응편향 측정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사전검사와 사전설시에 의해 증진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예측하지는 못했다. 논의에서는 이해도 점수 및 SDT 측정치들에 대한 분석 결과의 함의와 향후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배심원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배심 설시문, 사전검사, 사전설시, 이해도, 신호탐지이론(SDT)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7200).

† 교신저자: 한유화, 충북대학교 인간심리연구소(N15-236A),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E-mail: yuhwan82@gmail.com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온 한국의 배심재판제도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인인 배심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 및 양형의견을 제시하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12조), 판사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배심단의 평결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46조), 판사들의 최종판결은 배심원들의 평결과 다를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사건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총 1,835건의 사건 중 93.1%의 사건에서는 법원의 최종판결과 배심단 평결이 일치하였지만, 나머지 6.9%의 사건에서는 판결과 평결이 불일치하였다(법원행정처, 2017). 대법원의 사법지원실에서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최종판결과 배심단 평결이 불일치하는 원인 중 하나는 배심원들이 법률용어 및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수 있다(김병수, 2018). 배심평의를 거친 후 내려지는 배심단의 결정과 배심원 개인의 결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전문적으로 법률의 내용과 적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전부터 일반인들의 법적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최대권, 2004).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배심재판을 진행해 온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률용어나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도는 낮은 경향이 있다(Charrow & Charrow, 1979; Elwork, Sales, & Alfini, 1982; Lynch & Haney, 2000; Reifman, Gusick, & Ellsworth, 1992; Saxton, 1998). 한국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실제 배심원으로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기초하여 재판의 내용, 법률 용어, 증거

등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김병수, 2018). 또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몇몇 실험 연구들도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김종대, 이은로, 한상훈, 2011; 이운정, 조은경, 2014; 한유화, 강우예, 박광배, 2019). 배심 실시문은 판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에게 법률용어나 법적 판단을 위한 규칙 및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법률 등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설명문을 의미한다.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46조).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배심원들의 평결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Kerr, Atkin, Stasser, Meek, Holt, & Davis, 1976), 이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은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Baguley, McKimmie, & Masser, 2020). 그 방법들은 1) 법률용어를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거나, 2) 실시문에 제시된 법적 개념들을 사실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3) 배심 실시문의 사본을 제공하거나(판사의 실시문 또는 배심평의 시작 전), 4) 의사결정 보조도구(의사결정 나무/순서도,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하는 주요 질문 목록 등)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에 한유화 등(2019)은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 및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서 검�효과(testing effect, test-enhanced effect)를 사용한 이해도 증진 방안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사전지식 측정 집단과 이해도 측정 집단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사전지식 측정 집단은 배심 실시문의 내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사전지식을 측정한 후 실제 재판에 기초하여 제작된 재판 시나리오

와 배심 실시문을 제시하고, 다시 한 번 사전지식을 측정할 때 사용했던 문항들을 사용하여 이해도를 측정하였고, 이해도 측정 집단은 사전지식 측정 절차를 제외하고 동일한 절차로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두 집단의 이해도 비교 결과, 사전지식 측정 집단의 ‘증거’에 대한 이해도가 이해도만 측정된 집단의 ‘증거’에 대한 이해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이해도 차이가 실시문에서 다룬 모든 내용(합리적 의심, 무죄추정, 입증책임, 배심원의 의무, 증거,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 관찰된 것은 아니지만, 두 집단은 사전지식을 측정하는 절차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지식을 측정하는 절차 즉, 일종의 검사를 실시하는(testing) 것만으로도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단순히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검사 점수의 변화는 검사효과로 알려져 있다. 심리학에서는 검사효과를 실험처치의 효과를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이해하지만(Campbell, 1957), 교육학계에서는 검사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기억의 이점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Roediger & Butler, 2011; Roediger & Karpicke, 2006). 교육학자들은 검사효과를 ‘검사에 의한 증진 효과’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실제 지식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검사점수의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이해도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재판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단시간에 배심원들의 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심원 법적판단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 실시문 내용 이해도에 대한 긍정적인 검사효과와 실시문의 반복제시 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문항에 대한 정답여부로부터 얻어지는 이해도 점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 SDT, Green & Swets, 1966)을 적용한 분석

을 실시하였다. SDT는 옳은 응답을 적중(hit)과 정기각(correct rejection)으로 구분하고, 틀린 응답을 오경보(false alarm)와 누락(miss)으로 구분한다. 또한 이 비율 중 적중과 오경보 비율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민감도(sensitivity) 지수  $d'$ 과 특정한 응답(예 또는 아니오)을 하려는 반응편향(response bias)을 나타내는 지수  $\beta$ 를 제공한다. SDT를 적용한 응답분석을 통하여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고, 사전검사와 사전설시를 제공하는 것이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변화시키는지 단순히 모든 검사문항에 대하여 특정한 응답을 하려는 경향을 변화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본 연구의 세부적인 분석 결과로부터 향후에 배심원들의 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증진방안과 수정이 필요한 실시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실시문에 대한 높은 이해가 타당한 법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배심 실시문 이해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임무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판단을 위해 배심원들은 판사가 설시를 통해 제공하는 법적 규칙과 법률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970년대에 시작된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를 다룬 연구들은 배심원들의 이해가 그것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eifman et al., 1992; Semmler & Brewer, 2002).

Charrow와 Charrow(1975)는 배심 실시문의 어려운 언어가 적절히 수정된다면 배심원들의 이해가 상당히 증진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14개의 캘리포니아 민사 배심 실시문(California Civil Jury Instructions)을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참가자들

에게 제시하고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수정된 배심 설시문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균 이해도는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lwork, Sales와 Alfini(1977)는 과실책임에 대한 모범 설시문(Michigan negligence instructions)을 쉬운 언어로 수정하여, 수정된 설시문이 모범 설시문보다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으나 수정된 설시문에 대한 이해 점수의 만점이 12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9.69점은 충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설시문 내용 중 약 50%~70%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며(Baguley et al., 2020), 이것은 사법판단의 영역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여겨진다.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배심 평의의 유무(Rose & Ogloff, 2001; Severance, Greene, & Loftus, 1984; Wiener et al., 2004)와 연구 참가자가 일반인지 학생인지의 여부(Bornstein, 1999; Rose & Ogloff, 2001)와 관계없이 관찰되는 현상이다. 최근에 국내에서 배심원 자격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낮은 이해도가 관찰되었다. 한유화 등(2019)의 연구에서는 실제 살인사건에 기초한 간략한 재판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합리적 의심, 무죄추정, 입증책임, 배심원의 의무, 증거 및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설시문을 제시하고 이해도를 확인하였는데, 대학생들의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는 63.8점(만점은 100점)으로 나타났다. 김종대 등(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시문의 유형(기본형, 설명형, 상세예시형)에 따른 이해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네 개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각 실험에서 합리적 의심, 정당방위 및 심신장애에 대한 설시문 이해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인들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이해도는 4.22점~4.50점이었고, 대학생들의 경우 이 이해도는 5.08점~6.88점으로 나타났다(모두 7점 만점)이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이 두 연구에서 얻은 이해도 점수들을 만점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약 60%~98%로 이해도 측정의 대상과 설시문의 유형에 따른 이해도 차이가 다소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배심 설시문 이해도 증진 방법

연구자들은 배심 설시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몇 가지 원인을 제시하였다. Reifman 등(1992)은 이 원인들을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1) 어려운 법률 용어, 2) 배심 설시문의 전달 방식, 3) 배심 설시문의 제시시점 및 4) 배심 설시문의 이해를 위해 도움을 요청(질문)할 기회의 부재.

배심 설시문이 어려운 법률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학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고, 배심 설시문을 쉬운 언어로 다시 작성하여 배심원들의 설시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최근까지도 지속되었다(Charrow & Charrow, 1979; Diamond & Levi, 1995; Elwork et al., 1982; Randall, 2013; Randall & Graf, 2014). Diamond와 Levi(1995)는 19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설시문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였는데, 쉬운 언어로 수정된 설시문(Plain English Instructions)을 읽은 참가자들의 옳은 응답은 50%에서 65%로 증가하였고, 틀린 응답은 45%에서 30%로 감소하여 수정된 배심 설시문이 일반인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에 진행된 Randall(2013)의 연구에서는 법원에서 사용중인 배심 설시문과 쉬운 언어로 수정된 설시문을 들은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비교하였다. 정답률이 90%이상인 문항의 비율이 사용중인 설시문을 들은 조건에서는 30%, 수정된 설시문을 들은 조건에서는 52%로 나타났다. 즉, 쉬운 언어로 된 설시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가 더 높았다. Randall(2015)은 자신의 이전 연구들을 종합하여, 쉬운 언어로 된 설시문에 대한 이해도(84%)가 현재 사용되는 설시문에 대한 이해도(77%)보

1) 정당방위 및 심신장애에 대한 이해도 점수는 원 논문에서도 보고되지 않았다.

다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배심 설시문의 제시시점 또한 설시문의 이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Kassin & Wrightsman, 1979; Smith, 1987). Elwork 등(1977)의 연구에서는 배심 설시문의 제시시점에 따른 이해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Cruse와 Brown(1987)의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공판에서 증거가 제시되기 전과 후에 모두 배심 설시문을 듣는 것이 설시문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ieberman과 Sales(1997)도 배심 설시문을 공판에서 증거가 제시되기 전과 후에 모두 즉, 반복하여 제시하는 것이 설시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들(Cruse & Brown, 1987; Lieberman & Sales, 1997)은 배심 설시문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절차의 효과를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었지만, 배심 설시문을 증거 제시 전과 후에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배심 설시문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설시문의 전달 방식, 도움 요청의 기회에 대한 연구는 수정된 설시문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양이 적은 편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로 작성된 설시문은 일반인들이 듣기만 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Forston, 1975; Hastie, 1983; Heuer & Penrod, 1989). 같은 맥락에서, 배심원들이 설시문에 대해 노트필기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Heuer & Penrod, 1988) 설시문을 들음과 동시에 서면으로 읽도록 하는 방법(Randall, 2015)과 같이 설시문에 대한 불완전한 기억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노트필기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필기하는 것보다 사전에 구조화된 공판-지정 노트(trial-ordered notebook)를 사용하는 것이 참가자들의 기억을 증진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Hope, Eales, & Mirashi, 2014; Thorley, Baxter, & Lorek, 2016).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도 제안된

바 있는데,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설시문의 내용을 청각적 자료와 시청각 자료로 제작하여 법학 전공자와 일반인들에게 제시한 후, 그들의 설시문 이해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설시문의 내용을 청각 자료로만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학 전공자들의 이해도가 일반인들의 이해도가 더 높았지만, 시청각 자료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이해도가 법학 전공자들의 이해도 수준까지 증가하였다(Brewer, Harvey, & Semmler, 2004). 한국에서는 이윤정과 조은경(2014)이 언어적 구조가 단순한 설시문에 대한 일반인의 회상이 더 높고, 시각적 보조도구를 제시할 경우 설시문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최근에는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하는 주요 질문 목록을 제시하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Ede & Goodman-Delahunty, 2013; Essex & Goodman-Delahunty, 2014)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 검사효과

교육학 영역에서 검사는 개인의 능력 또는 이해의 수준에 대한 평가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검사는 개인의 기억 또는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에 교육심리학자들은 검사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기억의 이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Roediger & Butler, 2011; Roediger & Karpicke, 2006). Phelps(2012)가 수행한 검사효과에 대한 최근의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검사효과의 평균 효과크기(Cohen's *d*)는 중간수준인 0.55에서 큰 수준인 0.88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효과크기는 검사의 효과가 어떻게 통합 및 조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않지만, 매우 적절한 수준의 효과크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60개의 양적 연구 중 93%에서 검사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Karpicke와 Roediger(2008)는 매우 강력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들은 네 개의 실험 조건을 사용하여 외국어 학습에 대한 공부(studying)의 효과와 검사효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실험 조건은 1) 공부와 검사를 모두 실시하는 조건, 2) 검사만 실시하는 조건, 3) 공부만 실시하는 조건 및 4) 아무 처치도 하지 않는 통제조건이었다. 연구 결과 검사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만 실시했던 조건의 옳은 회상은 공부만 실시했던 조건 및 통제조건보다 월등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공부와 검사를 모두 실시한 조건과는 유사하였다.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다른 능동적인 학습 전략(예를 들면, 노트필기, 개념적 표상의 이용, 다양한 기억술 등)과 비교했을 때 검사효과가 기억 회상면에서 월등함을 보여주었다(Fritz, Morris, Acton, Voelkel, & Etkind 2007; Karpicke & Blunt, 2011; Larsen, Butler, & Roediger, 2013).

검사효과는 학습자, 학습 내용 및 수행 측정치 등의 다른 중요한 변인들에 대해서도 잘 일반화되어 있다(Larsen & Butler, 2013). 많은 연구자들이 단어 쌍(Karpicke & Roediger, 2008)이나 일반 상식(Bulter, Karpicke, & Roediger, 2008)과 같은 다양한 학습 내용에 대해 검사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검사효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Butler, 2010; Johnson & Mayer, 2009; Karpicke & Blunt, 2011; Larsen, Butler, Lawson, & Roediger, 2012; McDaniel, Howard, & Einstein, 2009)은 검사효과가 단순한 정보의 유지(retention)를 넘어서 지식의 전이(transfer of knowledge)에 있어서도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Larsen & Butler, 2013). 지식의 전이란, 학습한 정보를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다(Barnett & Ceci, 2002).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효과는 채판에서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배심원들의 기억 유지 기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SDT의 적용

SDT는 불확실성이 내재된 판단과제에서의 반응을 분석하여 탐지해야 하는 대상 즉, 신호(signal)와 신호 이외의 대상(잡음, noise)을 구별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민감도( $d'$ )와 그 구별(판단)을 위한 기준(criterion) 즉, 반응편향( $\beta$ )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들을 제공한다. SDT는 신호와 잡음을 구별하는 지각적 판단과제뿐만 아니라 어떤 단어가 학습한 단어 목록에 있었던 단어인지(old) 새로운 단어인지(new)를 판단하는 기억 판단과제(Wixted & Stretch, 2004) 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목격한 사건의 범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범인식별 과제에도 적용된다(Clark, 2012; Meissner, Tredoux, Parker, & MacLin, 2005).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 응답(반응)하는 것은 각 문항에 기술된 내용이 설시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기억 판단과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억 판단과제의 자극(특히 신호에 해당하는 자극)들은 학습단계에서 경험한 자극과 내용과 형태면에서 모두 차이가 없지만,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학습단계에서 경험한 자극과 내용면에서는 동일하되 그 형태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억 판단과제에서는 학습한 단어 목록의 단어가 그대로 신호로 제시되는 반면,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 응답하는 과제에서의 신호는 설시문에 제시되었던 내용을 새로운 맥락에서 기술한 것이다.

신호의 존재여부만을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판단과제에서 가능한 판단의 결과는 신호가 존재할 때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적중), 신호가 존재할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누락), 신호가 존재하지 않을 때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오경보), 신호가 존재하지 않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정기각)의 네 가지이다. 적중과 정기각은 옳은 판단이며, 누락과 오경보는 틀린 판단이다.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자극으로, 참가자들의 응답을 반응으로 간주한다면, 옳게 기술된 문항(신호)에 ‘예’ 반응하는 것과 틀리게 기술된 문항(잡음)에 ‘아니오’ 반응하는 것은 각각 적중과 정기각에 해당하며 모두 정답으로 구분된다. 또한 옳게 기술된 문항에 ‘아니오’ 반응하거나 틀리게 기술된 문항에 ‘예’ 반응하는 것은 각각 누락과 오경보이며 모두 오답이다. 사전검사와 사전설시의 효과는 이러한 응답 비율들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고, 이 응답비율들에 기초한 SDT 측정치의 분석은 각 효과가 ‘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DT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민감도 지수  $d'$ 은 신호분포와 잡음분포의 거리로 정의되며, 신호와 잡음을 잘 구별하는 정도 즉 판단의 정확성을 반영한다. 잡음분포의 위치는 언제나 0(고정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호분포와 잡음분포의 거리는 신호의 강도가 강할수록 멀어지고  $d'$ 은 증가한다(Green & Swets, 1966).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측정에 이 점을 적용해 보면, 이해도가 높아 각 문항에 응답할 때 필요한 심리적 표상(지식)이 명확할수록  $d'$ 은 커질 것이다. 반응편향 지수  $\beta$ 는 ‘예’ 또는 ‘아니오’의 반응 중 하나의 반응을 더 빈번하게 하는 경향성을 반영하는데, 민감도와는 독립적이며 틀린 반응이 초래하는 결과의 영향을 받는다(Green & Swets, 1966). 반응편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beta$ 의 값은 1이 되며, 1보다 작은 값은 ‘예’ 반응하는 경향, 큰 값은 ‘아니오’ 반응하는 경향을 반영한다(Stanislaw & Todorov, 1999).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지각할 수 있는 틀린 응답의 유형에 따른 보상 차이 즉, 두 종류의 틀린 응답이 초래하는 결과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험의 절차가 유발하는 체계적인 반응편향은 없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지식에만 의존하여 각 문항에 응답한다면, 반응편향 지수인  $\beta$ 의 값은 1에 가까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연구가설

재판 시나리오와 판사의 배심 설시문을 제시받기 전에 사전검사와 사전설시를 제공하는 것이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지와 증진된 이해도가 유무죄 판단을 잘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가설을 확인하였다. 첫 째는 사전검사와 사전설시를 제공하는 것이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는 가설이다(가설 1). 구체적으로 사전검사 또는 사전설시를 제시받지 못한 통제 조건의 이해도는 사전검사와 사전설시 둘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제시받은 조건들의 이해도 보다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통제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의 이해도에서도 차이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사전검사의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었던 Karpicke와 Roediger(2008)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사전검사도 사전설시와 마찬가지로 이해도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검사맞설시 조건은 이해도 증진을 위한 두 배의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건의 이해도는 사전검사 또는 사전설시만 제시 받은 두 조건에서 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요약하면, 첫 번째 가설은 사전검사와 사전설시 각각의 주효과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가설 1-1). 또한, 사전검사와 사전설시를 제공하는 것이 사전 이해도 점수와 독립변인의 처치 후 이해도 점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검사가 제공된 조건들을 선택(사전검사가 제공되지 않은 조건에는 사전 이해도 점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하여 사전검사의 주효과(사전-사후 이해도의 변화), 사전설시의 주효과 및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에서도 집단 간 분석과 같은 논리로 사전검사와 사전설시의 긍정적인 효과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기대하였다.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은 사전설시가 제공된 경우에 사전설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보다 이해도 점수의 변화 폭이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가설 1-2).

두 번째 가설은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전설시를 제공하는 것이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d'$ 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가설이다(가설 2). 이 가설은 실험조건에 따른 반응편향의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검증되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부수적으로 실험조건에 따른  $\beta$ 의 차이와  $d'$ 과  $\beta$ 의 근거가 되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들의 차이도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답비율(적중과 정기각)은 증가하고 오답비율(누락과 오경보)은 감소할 것(가설 2-1-1)과 가설 2-1-2)으로,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d'$ 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전설시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가설 2-2-1과 가설 2-2-2)으로,  $\beta$ 는 변화가 없을 것(가설 2-3-1과 가설 2-3-2)으로 기대하였다.

세 번째 가설은 합리적인 법적 판단과 이해도가 관련되어 있다는(Kerr et. al, 1976) 주장과 관련된 것이다.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유무죄 판단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배심 설시문을 제시하는 절차의 궁극적 목적에 의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그 이유는 배심 설시문을 제공하는 목적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법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Baguley, McKimmie, & Masser, 2020). 현재까지의 배심 설시문에 대한 이해도 연구들은 이해도 자체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해도와 유무죄 판단의 관련성에 대해 직접 검증하거나 그 결과에 무게를 두고 해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유무죄 판단의 관련성이 논리적 당위성을 가지는 바, 이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재판 시나리오의 피고인에 대한 법적으로 합리적인 판단(무죄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설 3)하였고, 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사전검사(무/유)와 사전설시(무/유)를 각각 집단간 변인으로 하는  $2 \times 2$  완전교차요인설계였다. 모든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재판 시나리오에 이어서 배심 설시문을 읽었고 법적 판단과 증거에 대한 평가, 이해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처치는 재판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실험 조건에 따라 재판 시나리오 제시 전에 사전검사와 사전설시 둘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제공받거나 어떠한 처치도 제공받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가 수행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CBNU-201804-BMSB-614-01).

## 연구대상

총 160명의 대학생들이 대학의 심리학 실험 참가자 모집시스템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는 심리학 과목에서 인정되는 2-크레딧을 부여받았다. 전체 참가자의 자료 중 모든 문항에 동일한 응답을 하거나 확률을 추정하는 문항에 모두 100% 또는 0%로 응답한 참가자들의 자료는 제외하고<sup>3)</sup>, 총 137명(여성 70명, 51.1%)의 자료를

3) 모든 문항에 동일한 응답을 한 참가자의 자료와 모든 확률 추정 문항에 100% 또는 0%로 동일한 응답을 한 참가자의 자료는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응답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확률 추정 문항들에서는 기소된 누군가의 유죄확률, 시나리오 피고인이 실제로 유죄일 확률(가능성), 합리적 의심의 기준에 부합하는 유죄 확률, 판단의 확신감이 측정되었다. 각 문항들은 서로 다른 판단의 기준과 가능성에 대한 추정치를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항에

2) 가설 2-1-1과 2-1-2는 각각 집단간 비교와 집단내 비교에서의 가설을 의미한다.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네 개의 실험조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사전검사와 사전설시를 전혀 제시받지 않은 통제 조건에는 34명(24.8%), 사전검사를 제시받은 사전검사 조건에는 35명(25.5%), 사전설시를 제시받은 사전설시 조건에는 34명(24.8%), 그리고 사전설시와 사전검사를 모두 제시받은 검사및설시 조건에는 34명(24.8%)이 포함되었다.

#### 재판 시나리오와 설시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판 시나리오와 설시문은 한유화 등(201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재판 시나리오는 평소 폭력적인 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동생)의 재판내용을 A4 용지 네 장 정도로 요약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판결문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으며 시나리오에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주장 및 유죄증거, 변호인측의 주장 및 무죄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 시나리오에서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범행도구, 피고인이 평소 형을 죽이는 상상을 했다고 말했다는 친구들의 증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명상을 입었다는 시신 부검결과 및 평소 형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유죄증거로 들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였다. 변호인측은 형이 먼저 자신의 목을 졸랐으며 사건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평소에도 굉장히 폭력적인 형이었다는 피고인 친구들의 증언, 피해자의 상처는 큰 힘을 주지 않아도 깊이 찢릴 수 있는 부위라는 법의학 연구소 연구원의 법정 진술,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책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는 피고인 어머니의 증언을 무죄증거로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재판 시나리오는 변호인측의 증거

강도를 조작하여 실제 사건의 판결인 무죄판단이 더 법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되도록 제작된 것이었고, 실제 사건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배심원들 역시 무죄로 판결하였다. 배심 설시문에는 간략한 사건개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의 기준,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검찰의 입증책임, 배심원의 의무, 증거, 살인의 고의성(사건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내용들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증명의 규칙 및 법률, 본 연구의 사건 시나리오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배심 설시문은 부록 1에 첨부하였다.

#### 사전검사(사전지식) 및 이해도 측정을 위한 문항

본 연구의 실험조건 중 사전검사를 제시받는 조건들에서는 사전지식 측정을 위해 사용된 문항들은 총 20문항으로, 한유화 등(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18문항과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과 배심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두 문항을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sup>4)</sup>. 이해도 측정에는 총 25문항이 사용되었는데 사전지식 측정을 위한 20문항에 재판 시나리오에 대한 기억을 측정하기 위한 다섯 문항이 추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설시문 관련 두 문항은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과 유죄일 가능성이 동일하다면 배심원들은 무죄판단해야 한다’와 ‘피고인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편견없이 판단하는 것이 배심원의 의무이다’이었다. 참가자들은 모든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1)’에서 ‘아니다(4)’의 4점 척도 상에 응답하였다. ‘대체로 그렇다(2)’와 ‘대체로 아니다(3)’에 대한 응답은 체점과정에서 각각 ‘그렇다’와 ‘아니다’에 대한 응답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해도 측정 문항은 부록 2에 첨부하였다.

100% 또는 0%로 응답한 경우 질문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4) 한유화 등(2019)에서 제작된 18개 문항과 추가된 두 문항의 내용과 정답은 모두 형사법 전공의 법학전문가의 사문을 구하여 구성 및 확정되었다.



그림 1. 조건별 연구절차

### 연구절차

실험실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과 연구절차에 대해 간략히 들은 후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실험 참가에 동의한 참가자들은 네 개의 실험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어 기본적인 정보(성별, 연령, 배심원 경험, 교육수준)를 묻는 질문들과 기소된 누군가가 유죄일 확률을 묻는 문항(“누군가 기소되었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유죄일 가능성은 어느정도입니까? 0에서 100까지의 퍼센트(%)로 나타내 주십시오.”)에 응답한 후, 각 실험조건에 부합하는 실험 처치(없음/사전검사/사전설시/검사및설시)를 받았다. 사전검사가 제공되는 두 조건의 참가자들은 사전지식 측정을 위한 문항들에 응답하였고, 사전설시가 제공되는 조건의 참가자들은 요약된 형태의 배심 실시문을 읽었다. 그 후, 실제 사건을 각색한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 시나리오와 재판장의 배심 실시문을 서면으로 제시받아 읽고 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법적 판단(피고인이 유죄일 가능성을 0-100사이 %로 평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또는 무죄 판단, 유무죄 판단에 대한 확신감을 0-100사이 %로 평정,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0-100사이 %로 평정, 시나리오에 제시된 증거들의 중요성 서열을 평정)을 묻는 질문들에 응답하였다. 기소된 누군가가 유죄일 확률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묻는 문항들은 유무죄 판단을 제외하고는 본 연구의 실제 목적과는 무관한 질문들로, 참가자들이 본 연구를 일

반인들의 법적 판단에 대한 연구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포함된 문항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배심 실시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실험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실험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디브리핑을 받았다. 실험소요 시간은 조건에 따라 20-30분 이내였으며, 조건별 연구절차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배심 실시문의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과 이해도, SDT에 기초한  $d'$ 과  $\beta$  및 각 응답결과의 비율,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다. 이해도는 실험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시되는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측정 문항에 정답 반응한 개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정답 수 ÷ 내용별 또는 전체 문항 수 × 100)하여 사용하였다. 사전지식은 사전검사가 제공되는 조건에 한하여 측정되는 변인으로, 이해도와 마찬가지로 실험의 첫 단계에 실시된 사전검사 문항에 정답 반응한 개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적중, 정기간, 오경보 및 누락에 해당하는 응답비율들과 이 비율들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d'$  과  $\beta$ 를 사전지식과 이해도 모두에 대하여 계산하였다<sup>5)</sup>. 피고인에

5) 배심 실시문의 하위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문항의 개수가 달라 특정 하위 내용에서는  $d'$ 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응답비율이 관찰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SDT에 기초한 측정치들의 비교는 전체 이해도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대한 유무죄 판단은 재판 시나리오와 실시문을 읽은 직후에 참가자들이 응답한 참가자들의 유죄 또는 무죄 응답을 사용하였다.

### 연구 결과

사전검사와 사전설시에 따른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사전검사와 사전설시에 따른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심 실시문의 하위내용 및 전체 이해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배심 실시문의 하위내용 중 ‘무죄추정’, ‘증거’, ‘살인의 고의성’ 및 전체 이해도에서는 검사및설시 조건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합리적 의심’과 ‘배심원 의무’에서는 사전설시 조건의

평균이, ‘입증책임’에서는 사전검사 조건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실험조건에 따른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설 1-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전설시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배심 실시문의 각 하위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전체 이해도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련의 이원변량분석(2-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죄추정’에 대한 사전설시의 주효과( $F(1, 133)=6.609, p<.05, \eta_p^2=.047$ ), ‘증거’에 대한 사전검사의 주효과( $F(1, 133)=5.366, p<.05, \eta_p^2=.039$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설시가 제공되었을 때의 ‘무죄추정’에 대한 이해도는 84.56점으로 사전설시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이해도 71.74점보다 높았다. 또한 사전검사가 제공되었을 때의 ‘증거’에 대한 이해도는 73.91점으로 사전검사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이해도 65.69점

표 1. 실험조건에 따른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 평균(표준편차)

내용	실험조건별 평균(표준편차)				주변 평균(표준편차)			
	통계 (N=34)	사전검사 (N=35)	사전설시 (N=34)	검사및설시 (N=34)	사전검사		사전설시	
					무 (N=68)	유 (N=69)	무 (N=69)	유 (N=68)
합리적 의심	31.80 (18.40)	34.80 (19.00)	35.80 (20.20)	33.00 (17.60)	33.82 (19.32)	33.91 (17.67)	33.33 (18.68)	34.41 (18.88)
무죄추정	70.50 (30.50)	73.00 (30.50)	84.00 (29.50)	85.50 (26.00)	77.21 (30.46)	78.99 (28.96)	71.74 (30.29)	84.56 (27.67)
입증책임	26.50 (39.50)	44.50 (38.00)	31.00 (42.50)	39.50 (44.00)	28.68 (40.81)	42.03 (40.79)	35.51 (39.39)	35.29 (43.24)
배심원 의무	60.50 (27.00)	57.00 (27.50)	63.00 (22.50)	51.50 (15.00)	61.76 (24.61)	54.35 (22.26)	58.70 (27.06)	57.35 (19.82)
증거	66.67 (20.50)	69.00 (22.50)	64.67 (21.17)	79.00 (19.33)	65.69 (20.74)	73.91 (21.48)	67.87 (21.45)	71.81 (21.41)
살인의 고의성	50.00 (27.67)	45.67 (34.33)	48.00 (35.00)	55.00 (33.67)	49.02 (31.26)	50.24 (34.12)	47.83 (31.04)	51.47 (34.28)
전체 이해도	51.20 (11.40)	53.70 (15.55)	53.40 (12.90)	57.80 (14.20)	52.28 (12.14)	55.72 (14.93)	52.46 (13.63)	55.59 (13.65)

다 높았다.

집단내 사전-사후 이해도 변화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전설시의 효과

사전검사를 제공하는 것이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해 참가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제공받은 두 조건 즉, 사전검사와 검사및설시 조건의 자료를 선택하여 사전검사에서 얻은 사전지식 점수와 이해도 검사에서 얻은 이해도 점수를 비교하였다. 사전검사를 제공받은 조건 중 한 조건은 사전설시를 함께 제공 받은 조건으로 이 조건의 이해도 점수에는 사전설시의 효과가 혼입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검사를 제공한 조건들의 이해도 변화에 대한 사전검사의 순

수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독립변인인 사전설시의 제공 여부를 고려하였다. 사전설시에 따른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과 이해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사전검사 조건에서는 ‘무죄추정’, ‘입증책임’, ‘증거’ 및 ‘전체 이해도’에서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사전설시가 제공되었던 검사및설시 조건에서도 ‘무죄추정’, ‘입증책임’, ‘증거’, ‘살인의 고의성’ 및 ‘전체 이해도’에서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전검사의 긍정적인 효과(이해도 증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가설 1-2)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지식과 이해도 점수, 사전설시를 각각 집단내 변인과 집단간 변인으로 지정한 후

표 2. 사전설시에 따른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과 이해도 평균(표준편차)

내용	실험조건별 평균(표준편차)				추정된 주변 평균 <sup>a</sup>			
	사전설시 없음 (사전검사 조건)		사전설시 있음 (검사및설시 조건)		사전-사후 점수 (집단내 요인)		사전설시	
	사전지식 (N=35)	이해도 (N=35)	사전지식 (N=34)	이해도 (N=34)	사전지식 (N=69)	이해도 (N=69)	무 (N=35)	유 (N=34)
합리적 의심	37.20 (18.80)	34.80 (19.00)	34.80 (22.20)	33.00 (17.60)	35.92	33.90	36.00	33.82
무죄추정	64.50 (37.50)	73.00 (30.50)	75.00 (33.00)	85.50 (26.00)	69.64	79.08	68.57	80.15
입증책임	17.00 (29.50)	44.50 (38.00)	26.50 (39.50)	39.50 (44.00)	21.81	42.00	30.71	33.09
배심원 의무	55.50 (20.00)	57.00 (27.50)	57.50 (25.00)	51.50 (15.00)	56.53	54.31	56.43	54.41
증거	64.83 (18.50)	69.00 (22.50)	63.17 (20.00)	79.00 (19.33)	64.00	73.98	66.90	71.08
살인의 고의성	44.67 (32.33)	45.67 (34.33)	50.00 (34.00)	55.00 (33.67)	47.38	50.31	45.24	52.45
전체 이해도	49.15 (12.85)	53.70 (15.55)	51.05 (11.85)	57.80 (14.20)	50.09	55.75	51.43	54.41

a. 추정된 주변평균은 표준편차가 계산되지 않음.

혼합설계를 위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죄추정( $F(1, 67)=5.388, p<.05, \eta_p^2=.074$ )’과 ‘입증책임( $F(1, 67)=12.293, p<.01, \eta_p^2=.155$ )’에 대한 사전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증거( $F(1, 67)=9.089, p<.01, \eta_p^2=.119$ )’와 ‘전체 이해도( $F(1, 67)=9.957, p<.01, \eta_p^2=.129$ )’에 대해서도 사전지식의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사전설시의 제시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때, ‘무죄추정’에 대한 사전지식은 69.64점에서 79.08점으로 증가하였고, ‘입증책임’에 대한 사전지식은 21.81점에서 42.00점으로 증가하였다. ‘증거’에 대한 사전지식도 64.00점에서 73.98점으로, 사전 ‘전체 이해도’ 점수 또한 50.09점에서 55.75점으로 증가하였다. 즉, ‘무죄추정’, ‘입증책임’, ‘증거’ 및 ‘전체 이해도’에 대해서는 사전검사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전검사와 사전설시에 따른 응답결과의 비율,  $d'$  과  $\beta$

사전검사와 사전설시에 따른 배심원들의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 분석에 SDT를 적용하였다. 참가자의 응답(예/아니오)과 문항의 특성(옳은 기술/틀린 기술)에 대한 교차분할표의 각 셀에 해당하는 네 가지 응답결과의 비율들을 확인한 후, 적중과 오경보 비율에 근거하여  $d'$  (수식 1)과  $\beta$ (수식 2)를 산출하였다. 실험조건에 따른 응답결과 비율의 평균(표준편차)을 표 3에, 실험조건에 따른  $d'$ ,  $\beta$  산출을 위한 응답결과 비율의 평균(표준편차) 및  $d'$ ,  $\beta$ 를 표 4에 각각 제시하였다.

$$d' = Z(\text{적중}) - Z(\text{오경보}) \quad \text{[수식 1]}$$

$$\beta = e^{\left[ \frac{[Z(\text{오경보})]^2 - [Z(\text{적중})]^2}{2} \right]} \quad \text{[수식 2]}$$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중과 정기각의 비율을 합한 옳은 응답 비율은 검사및설시 조건에서 전체 응답의 58%로 가장 높았고, 오경보와 누락의 비율을 합한 틀린 응답 비율은 검사및설시 조건에서 42%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통제 조건에서는 옳은 응답 비율이 전체 응답의 51%로 가장 낮았고, 틀린 응답 비율은 전체 응답의 49%로 가장 높았다. 사전검사와 사전설시 조건의 옳은 응답 비율과 틀린 응답 비율은 각각 54%와 46%로 두 조건에서 동일하였다.

실험조건에 따른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각 응답결과 비율의 차이(가설 2-1-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사전설시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각 응답결과의 비율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련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적중과 누락의 비율<sup>6)</sup>에 대한 사전설시의 주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두  $F(1, 133)=4.477, p<.05, \eta_p^2=.03$ . 적중의 비율은 사전설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29%)보다 사전설시가 제공되는 경우(32%)에 더 높았고, 누락의 비율은 사전설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11%)보다 사전설시가 제공되는 경우(8%)에 더 낮았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 은 통제조건에서 0.23으로 가장 낮았고, 검사및설시 조건에서 0.53로 가장 높았으며,  $\beta$ 는 통제와 사전검사 조건에서 모두 1.00으로 동일하였고, 사전설시 조건에서는 1.02, 검사및설시 조건에서는 0.8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조건에 따른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d'$ 과  $\beta$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 응답결과 비율 중 적중과 누락, 오경보와 정기각은 두 비율의 합이 1이 되어야 하므로 둘 중 하나의 비율에 따라 다른 하나의 비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적중과 누락, 오경보와 정기각의 비율들과 비율들의 변량은 서로 종속적 관계이고 이들의 통계적 검증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표 3. 실험조건에 따른 응답결과 비율의 평균(표준편차)

응답결과	실험조건별 평균(표준편차)				주변 평균(표준편차)			
	통제 (N=34)	사전검사 (N=35)	사전설시 (N=34)	검사및설시 (N=34)	사전검사		사전설시	
					무 (N=68)	유 (N=69)	무 (N=69)	유 (N=68)
적중	.28(.06)	.31(.07)	.31(.07)	.33(.06)	.30(.07)	.32(.07)	.29(.07)	.32(.07)
오경보	.37(.11)	.37(.13)	.37(.12)	.35(.12)	.37(.12)	.36(.12)	.37(.12)	.36(.12)
누락	.12(.06)	.09(.07)	.09(.07)	.07(.06)	.10(.07)	.08(.07)	.11(.07)	.08(.07)
정기각	.23(.11)	.23(.13)	.23(.12)	.25(.12)	.23(.12)	.24(.12)	.23(.12)	.24(.12)

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데 사용한 비율은 전체 문항 수에 대한 각 응답결과의 비율임.

표 4. 실험조건에 따른 정답내 응답결과 비율<sup>a</sup> 및  $d'$ 과  $\beta$  평균(표준편차)

응답결과	실험조건			
	통제 (N=32)	사전검사 (N=27)	사전설시 (N=27)	검사및설시 (N=23)
적중	.71(.16)	.76(.18)	.77(.18)	.83(.14)
오경보	.62(.19)	.61(.21)	.62(.20)	.59(.21)
누락	.29(.16)	.24(.18)	.23(.18)	.17(.14)
정기각	.38(.19)	.39(.21)	.38(.20)	.41(.21)
$d'$	0.23(0.63)	0.17(0.72)	0.25(0.68)	0.53(0.63)
$\beta$	1.00(0.33)	1.00(0.48)	1.02(0.42)	0.86(0.26)

a. 정답내 비율은 정답이 동일한 문항 수에 대한 각 반응의 비율을 의미함.

b.  $d'$ 과  $\beta$ 산출시 사용된 사례수

집단내 사전-사후 응답결과 비율,  $d'$  및  $\beta$ 의 변화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전설시의 효과

사전검사를 제공하는 것이 응답결과의 비율,  $d'$  및  $\beta$ 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제공받은 사전검사와 검사및설시 조건의 자료를 선택하여 사전검사와 이해도 검사 각각으로부터 얻은 응답결과의 비율,  $d'$  및  $\beta$ 를 비교하였다. 이 분석에서도 사전설시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사전설시를 함께 독립변인으로 지정하였다. 사전설시에 따른 사전지

식과 이해도의 응답결과 비율,  $d'$  및  $\beta$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전검사 조건에서는 전체 응답에 대한 적중(20%에서 31%), 오경보(29%에서 37%) 및 정기각(11%에서 23%)의 비율이 증가하고 누락의 비율은 감소(40%에서 9%)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사전설시가 제공되었던 검사및설시 조건에서도 전체 응답에 대한 적중(22%에서 33%), 오경보(29%에서 35%) 및 정기각(11%에서 25%)의 비율은 증가하고 누락의 비율은 감소(38%에서 7%)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5. 사전설시에 따른 응답결과 비율의 평균(표준편차)

응답결과	실험조건별 평균(표준편차)				추정된 주변 평균(표준편차) <sup>a</sup>			
	사전설시 없음 (사전검사 조건)		사전설시 있음 (검사맞설시 조건)		사전-사후 점수 (집단내 요인)		사전설시	
	사전지식 (N=35)	이해도 (N=35)	사전지식 (N=34)	이해도 (N=34)	사전지식 (N=69)	이해도 (N=69)	무 (N=35)	유 (N=34)
적중	.20(.12)	.31(.07)	.22(.13)	.33(.06)	.29	.32	.30	.31
오경보	.29(.07)	.37(.13)	.29(.08)	.35(.12)	.39	.36	.39	.37
누락	.40(.12)	.09(.07)	.38(.13)	.07(.06)	.11	.08	.10	.09
정기각	.11(.07)	.23(.13)	.11(.08)	.25(.12)	.21	.24	.21	.23

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데 사용한 비율은 전체 문항 수에 대한 각 응답결과와의 비율임.

a. 추정된 주변평균은 표준편차가 계산되지 않음.

각 응답결과 비율들에 대한 사전검사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가설 2-1-2)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와 이해도 검사로부터 얻은 각 응답비율들과 사전설시를 각각 집단내 변인과 집단간 변인으로 지정한 후 혼합설계를 위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중과 누락 비

율의 변화(모두  $F(1, 67)=4.801, p<.05, \eta_p^2=.067$ ) 및 오경보와 정기각 비율(모두  $F(1, 67)=4.324, p<.05, \eta_p^2=.061$ )의 변화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설시 여부에 상관없이 사전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적중의 비율은 29%에서 32%로 증가하였고, 오경보는 39%에서 36%

표 6. 사전설시에 따른 정답내 응답결과 비율<sup>a</sup> 및  $d'$ 과  $\beta$  평균(표준편차)

응답결과	실험조건별 평균(표준편차)				추정된 주변 평균 <sup>b</sup>			
	사전설시 없음 (사전검사 조건)		사전설시 있음 (검사맞설시 조건)		사전-사후 점수 (집단내 요인)		사전설시	
	사전지식 (N=21)	이해도 (N=21)	사전지식 (N=20)	이해도 (N=20)	사전지식 (N=41)	이해도 (N=41)	무 (N=21)	유 (N=20)
적중	.74(.18)	.76(.18)	.73(.21)	.83(.14)	.73	.80	.75	.78
오경보	.67(.20)	.61(.21)	.63(.22)	.59(.21)	.65	.60	.64	.61
누락	.26(.18)	.24(.18)	.27(.21)	.17(.14)	.27	.20	.25	.22
정기각	.33(.20)	.39(.21)	.37(.22)	.41(.21)	.35	.40	.36	.39
$d'$	0.17 (0.63)	0.17 (0.72)	0.29 (0.63)	0.53 (0.63)	0.13	0.43	0.20	0.36
$\beta$	0.99 (0.37)	1.00 (0.48)	0.97 (0.40)	0.86 (0.26)	1.01	0.87	0.94	0.94

a. 정답내 비율은 정답이 동일한 문항 수에 대한 각 반응의 비율을 의미함.

b. 추정된 주변평균은 표준편차가 계산되지 않음.

c.  $d'$ 과  $\beta$ 산출시 사용된 사례수

로 감소하였다. 또한 누락의 비율은 11%에서 8%로 감소하였고, 정기각의 비율은 21%에서 24%로 증가하였다.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 은 사전검사 조건에서는 사전지식과 이해도 모두 0.17로 동일하였고, 사전설시가 제공되었던 검사및설시 조건에서는 0.29에서 0.53으로 증가하였다.  $\beta$ 는 사전검사만 제공된 경우에는 0.99에서 1.00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사전검사와 사전설시가 모두 제공되었던 경우에는 0.97에서 0.86으로 감소하였다.  $d'$ 과  $\beta$ 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가설 2-2-2와 가설 2-3-2)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혼합설계를 위한 변량분석 결과,  $d'$ 에 대한 사전검사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39)=5.444, p<.05, \eta_p^2=.122$ .  $\beta$ 에 대해서도 사전검사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39)=4.174, p<.05, \eta_p^2=.097$ .  $d'$ 은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0.13에서 0.43으로 증가하였고,  $\beta$ 는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1.01에서 0.87로 감소하였다.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유무죄 판단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법적으로 합리적인 판

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이해도의 수준이 유무죄 판단을 잘 예측할 수 있는지(가설 3)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는 유무죄 판단에 많은 영향을 주는 피고인의 유죄가능성과 판단의 역치로 간주되는 참가자가 직접 평정한 수량화된 합리적 의심기준을 통제변인으로 함께 포함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예언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데(Allison, 1999), 본 연구 예언변인들의 VIF 값들은 1.071 ~ 1.416 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가자들이 평정한 피고인이 실제로 유죄일 가능성과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이해도만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잘 예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죄가능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유죄판단의 가능성은 1.11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B=0.108, OR=1.114, Wald=31.006, p<.001$ ),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이해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단할 가능성은

표 7.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유무죄 판단

	B	S.E.	Wald	df	p	OR
상수	-5.171	1.770	8.540	1	.003	.006
유죄가능성	.108	.019	31.006	1	.000	1.114
합리적 의심 기준	-.003	.015	.034	1	.853	.997
합리적 의심	-.200	.322	.385	1	.535	.819
무죄추정	.062	.450	.019	1	.891	1.064
입증책임	.037	.351	.011	1	.915	1.038
배심원의 의무	.211	.568	.138	1	.711	1.234
증거	.171	.223	.587	1	.443	1.186
살인의 고의성	-.665	.338	3.861	1	.049	.515

Nagelkerke  $R^2=.619$



1.94(1/0.5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 $B=-0.665$ ,  $OR=0.515$ ,  $Wald=3.861$ ,  $p<.05$ ).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재판 시작 전에 사전검사와 사전설시를 제공받는 것이 증거를 들은 후에 판사가 제시하는 배심 설시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두 개의 독립변인이 완전교차하는  $2 \times 2$  완전교차요인설계를 사용하였고, 총 네 개의 실험조건(통제, 사전검사, 사전설시와 검사및설시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이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서로 다른 증진방안을 처치 받았다.

### 사전검사와 사전설시의 효과

연구 결과, 배심 설시문 내용의 ‘전체 이해도’에 대한 두 독립변인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배심 설시문을 구성하는 하위 내용 중 ‘무죄추정’에 대해서는 사전설시의 주효과, ‘증거’에 대해서는 사전검사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해도 증진의 효과는 개인내 비교에서도 관찰되었다. ‘무죄추정’, ‘증거’, ‘입증책임’과 ‘전체 이해도’ 점수에서 반복적인 검사(측정) 즉, 사전검사에 따른 사전지식 점수의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종합하면,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전설시의 이해도 증진 효과는 설시문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무죄추정’과 ‘증거’에 대해서는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방안의 효과가 일부 관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죄추정’과 ‘증거’에 대한 이해도에 한하여 첫 번째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배심 설시문의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과 설시문을 제시 받은 후의 이해도를 집단간 비교한 한유화 등(2019)의 연구에서는 배심 설시문의

내용 중 입증책임, 증거, 살인의 고의성 및 전체 이해도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된 바 있다( $p<.01$ ). 본 연구의 설계가 이들의 연구 설계(독립집단 사전-사후 설계)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한 완전교차요인 설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한유화 등(2019)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된 특정 배심 설시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사전설시와 사전검사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전검사 및 사전설시의 이해도 증진 효과가 관찰된 설시문의 내용은 ‘무죄추정’과 ‘증거’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과 이해도는 다른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른 내용들에 대한 사전지식 점수는 낮았던(17.00점 ~ 57.50점) 반면, ‘무죄추정’과 ‘증거’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았다(63.17점 ~ 75.00점). 이렇게 사전지식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만 이해도 증진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전검사 및 사전설시의 이해도 증진 효과가 배심원들이 이미 보유한 지식과 부합하는 내용일 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확증적이고 선택적인 증거 수집 및 해석(확증편향, Nickerson, 1998)은 매우 흔한 현상이다. 증거능력이 없는(inadmissible) 증거를 무시하라는 배심 설시문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Kassin & Sommers, 1997; Sommers & Kassin, 2001)에서 배심원들은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는 증거(유죄판단을 지지하지만 잘 들리지 않아서 내용 파악이 어려운 자백영상)가 신빙성이 없으므로(잘 들리지 않고 내용 파악이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무시해야 한다는 설시문 내용은 잘 받아들였지만,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므로 그 증거를 무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배심원들의 선택적(설시)준수(selective compliance) 현상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식(knowledge)과 신념(belief)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타당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로 구분된다(Richardson, 1996). 내용적 측면에서 ‘합리적 의심’과 ‘입증의 책임’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개인의 의사결정 기준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배심원 의무’와 ‘살인의 고의성’은 개인의 경험이나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 주관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다. 즉, 이 내용들은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 또는 정의가 있지만 개인의 경험적이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주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일종의 신념이기도 하다. 반면에 ‘무죄추정’이나 ‘증거’에 대한 내용은 객관적인 지식에 관한 것이다. 유죄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증거인지 아닌지는 법률로서 정당화된 명제이며 경우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법률적 지식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전검사와 사전설시를 제공하는 것이 설시문 내용의 특성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사전검사와 사전설시는 지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사전검사와 사전설시가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과 설시문의 내용이 배치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설득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의 신념과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신념을 회상하게 하는 것이 설득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Murphy & Mason, 2006). 사전검사를 실시한 조건에서 관찰된 낮은 사전지식 점수(내용에 따라 17.00점 ~ 57.50점)는 개인의 신념과 법적으로 옳은 설시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기존의 신념이나 지식과 다르다면 설득이나 지식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사전 신념이 존재하는 경우 인과적 설명에 의해 신념의 변화가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Kardash & Scholes, 1995)에 따르면, 이해도 변화가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설시문에 해당 법률의 기원이나 목적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이해도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해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여전히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통해 법적 규칙과 법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죄증명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의 ‘합리적 의심’이 어느 정도의 의심인지 오랜 시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해 체득한다. 설시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증진방안을 제공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기준이 쉽게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경험을 통해 체득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일반시민이 배심원이 되었을 때 이 기준을 적절히 설정하도록 하는 방법 역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도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공개적인 시민 교육이나 법원의 주기적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법적 규칙이나 법률적 개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비롯한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바람직 할 수 있다.

#### SDT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배심 설시문 내용의 이해도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전설시가 이해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DT를 적용하였다. SDT는 탐지해야 하는 신호의 존재에 대한 판단자의 판단결과에 기초하여 신호와 잡음을 구별하는 판단자의 능력(민감도)과 반응편향을 반영하는 측정치들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도 측정 문항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네 가지 응답결과(적중, 오경보, 누락, 정기각)의 비율,  $d'$ 과  $\beta$ 를 산출하여 이해도 점수를 비교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

하였다.

연구 결과, 옳게 기술된 문항에 ‘예’ 반응하는 비율(적중)과 옳게 기술된 문항에 ‘아니오’ 반응하는 비율(누락)에서만 사전설시의 주효과가 관찰되었고( $p < .05$ ) 오경보와 정기각의 비율에 대해서는 어떠한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전설시를 제공하는 것이 응답자들로 하여금 옳게 기술된 문항을 더 잘 탐지하게 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사전검사와 사전설시를 제공하더라도 틀리게 기술된 문항에 대한 반응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d'$ 과  $\beta$ 에 대한 집단간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의 가설 2-1-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지만, 가설 2-2-1은 지지되지 않았고, 가설 2-3-1은 지지되었다.

개인내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는 네 가지 응답결과 모두에서 사전검사에 따른 비율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옳은 응답인 적중 및 정기각 비율은 사전지식에서보다 이해도 측정에서 증가하였고, 틀린 응답인 오경보 및 누락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것은 사전설시의 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사전검사의 실시에 따른 긍정적인 이해도의 변화가 개인내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가설 2-1-2가 지지).  $d'$ 과  $\beta$ 에 대해서는 사전검사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d'$ 은 0.13에서 0.43으로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사전검사에 의해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본 연구의 가설 2-2-2는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eta$ 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1.01에서 0.87로 감소하여 가설 2-3-2는 지지되지 않았다. 반응편향을 반영하는  $\beta$ 는 1이면 어떠한 반응편향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클수록 ‘아니오’ 반응하는 경향, 1보다 작을수록 ‘예’ 반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Stanislaw & Todorov, 1999). 즉,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응답자들은 어떠한 반응편향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예’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경향성이 관찰된 것이다. 이러한 반응경향성의 차이는 사전

설시 제시여부에 따라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관찰된 이유는 참가자내 변인인 사전검사에 따른  $\beta$ 의 변화에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전검사에서의 응답을 이해도 검사에서 교정하려는 시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참가자간 변인인 사전설시 제시여부에 따른  $\beta$ 의 차이에는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교정하려는 시도가 반영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beta$ 에 대한 사전검사의 주효과는 개인의 응답을 교정하려는 시도에 의한 효과일 수 있다. 또한, 응답결과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예’ 응답은 옳은 기술문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누락 비율의 감소). ‘예’ 응답이 문항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배심 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내  $\beta$ 의 변화가 이해도의 증진을 시사하는 누락 비율의 감소 및  $d'$ 의 증가와 동반되었다는 것은  $d'$ 과  $\beta$ 가 독립적이라는 가정(Green & Swets, 1966)이 개인내 이해도의 변화 측면에서는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옳은 기술문에 대한 옳은 반응 비율을 높이는 효과는 두 가지 비교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틀린 기술문에 대한 옳은 반응 비율을 높이는 효과는 개인차를 더 작게 추정하는 집단내 비교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집단간 비교에서  $d'$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집단내 비교에서는  $d'$ 에 대한 유의한 개인내 변화(사전검사의 효과)가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들에 기초하여 틀린 기술문에 대한 반응 변화는 옳은 기술문에 대한 반응의 변화보다 개인차가 클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집단내 비교에서  $d'$ 이 증가한 것과  $\beta$ 가 ‘예’ 반응편향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변화(감소)한 것, 이러한 ‘예’ 반응이 옳은 기술문에 대해서만 증가한 것을 종합하면, 사전검사는 사전설시의 제시여부와 무관하게 실시문 내용에 대한 옳은 기술과 틀린 기술을 구별하는 능력(민감도)을 유의

하게 증가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집단내 비교는 집단간 비교에서보다 오차변량이 작게 추정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관찰하기 쉽다. 그러나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방안들은 개인들이 가진 사전지식 수준을 증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기 쉬운 집단내 비교 결과에 기초한 사전검사의 효과일지라도 타당하게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유무죄 판단

배심원들의 배심 설시문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해도가 유무죄 판단과 직결될 것(Kerr et al., 1976)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기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배심 설시문의 하위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점수들과 참가자가 직접 평정한 피고인의 유죄가능성 및 합리적 의심 기준을 사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예측하기 위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의 유죄가능성과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이해도만이 유무죄 판단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이 설시문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유화 등(2019)의 연구에서도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유무죄 판단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였는데,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피고인의 유죄가능성 및 합리적 의심 기준을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합리적 의심’, ‘배심원 의무’ 및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이해도만이 유무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었다. 이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평가가 유무죄 판단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살인사건을 다룬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두 연구에서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났던 재판 시나리오를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유무죄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배심 설시문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유무죄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련의 질문을 제시하는 것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Ede & Goodman-Delahunty, 2013; Essex & Goodman-Delahunty, 2014)에서 보여준 결과 즉, 질문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배심원 자격이 있는 일반인들의 설시문에 대한 이해도는 높이지만 그들의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와 같은 것이다. 설시문에 대한 이해도와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 간 관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은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는 비합리적인 요소들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도가 재판 전에 사전검사와 사전설시를 제공하는 증진방안을 사용함으로써 일부 내용에서 증진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증진된 이해도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SDT를 적용한 분석을 통하여 사전검사와 사전설시가 옳은 진술문에 대한 옳은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고 특히, 개인내에서의 이해도 점수 변화는 사전검사가 이해도를 증진시켜 틀린 응답을 교정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적 증거에 기초하여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분적인 효과를 확인한 사전검사와 사전설시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은 추후에 그 효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배심 설시문의 다른 내용들에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항들이 개발된다면 현실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이해도 증진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원은 배심원선정을 위하여 질문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25조), 이 질문표를 제공할 때에 배심 설시문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설시문 사본과 설시문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심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설시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검사효과를 비교적 복잡한 법률적 내용에 대한 이해에 적용한 것으로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사전검사의 효과가 실제 일반인들의 법률에 관한 지식수준 변화에 의해 관찰된 것인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실험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증한 설시문의 반복제시 효과는 설시문의 제시시점에 대한 연구에서 착안한 것이다. 본 연구 이외에 설시문의 반복제시 효과는 직접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추후에 설시문의 반복제시 빈도를 조작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배심 설시문 이해도 증진을 위해 보다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하는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 연구의 가설이 모두 지지되지는 않았고, 연구 대상이 배심원 자격을 가진 일반인들의 일부인 20대 대학생들로 한정적이었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해도 변화 양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개인의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정신적 표상과 그것의 인출 및 적용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도록 개발되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향후 효과적인 배심 설시문의 내용과 구조 또는 제시 방법 등을 연구하고 결정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저자 소개

한유화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충북대학교 인간심리연구소

의 학술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배심원의 판단 및 의사결정, 허위자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배심원의 유죄판단 기준을 수량화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을 진행중이다.

박광배는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현재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의 명예교수, 케이에스앤피 법과인간행동연구소의 고문을 역임하며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연구관심사는 배심원의 판단 및 의사결정, 법정 평가 도구의 개발 등이다.

### 참고문헌

김병수 (2018). 배심원 교육을 통한 공정한 국민 참여재판의 실현. *법학연구*, 59(3), 35-63.

김중대, 이은로, 한상훈 (2011).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기준에 대한 배심원의 이해도 연구. *법학연구*, 21(2), 1-42.

법원행정처 (2017). 2008-2016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서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이운정, 조은경 (2014).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 의 지시문 유형과 순서도 사용이 배심원들의 이해도와 평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4), 71-92.

최대권 (2004). 국민의 사법참여: 무엇인 문제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45(3), 119-140.

한유화, 강우예, 박광배 (2019).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사전지식 및 이해도. *사회과학연구*, 35(1), 73-95.

Allison, P. D. (1999).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SAS system: Theory and application*. Cary, NC: SAS Institute. Inc. and John Wiley and Sons.

Baguley, C. M., McKimmie, B. M., & Masser, B. M. (2020). Re-evaluating how to measure jurors'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jury instructions. *Psychology, Crime & Law*, 26(1),

- 53-66.
- Barnett, S. M., & Ceci, S. J. (2002). When and where do we apply what we learn? A taxonomy for far transfer. *Psychological Bulletin*, 128(4), 612-637.
- Bornstein, B. H. (1999). The ecological validity of jury simulations: Is the jury still out? *Law and Human Behavior*, 23(1), 75-91.
- Brewer, N., Harvey, S., & Semmler, C. (2004). Improving comprehension of jury instructions with audio visual presentatio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6), 765-776.
- Butler, A. C. (2010). Repeated testing produces superior transfer of learning relative to repeated study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36(5), 1118-1133.
- Butler, A. C., Karpicke, J. D., & Roediger III, H. L. (2008). Correcting a metacognitive error: feedback increases retention of low-confidence correct respons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34(4), 918-928.
- Campbell, D. T. (1957). Factors relevant to the validity of experiments in social settings. *Psychological Bulletin*, 54(4), 297-312.
- Charrow, R. P. & Charrow, V. R. (1979). Making legal language understandable: A psycholinguistic study of jury instructions. *Columbia Law Review*, 79(7), 1306-1374.
- Clark, S. E. (2012). Costs and benefits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reform: Psycholog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7(3), 238-259.
- Cruse, D. & Brown, B. A. (1987). Reasoning in a jury trial: The influence of instructions.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14(2), 129-133.
- Diamond, S. S. & Levi, J. N. (1995). Improving decisions on death by revising and testing jury instructions. *Judicature*, 79(5), 224-232.
- Ede, T. & Goodman-Delahunty, J. (2013). Question trails in trials: structured versus unstructured juror decision-making. *Criminal Law Journal*, 37(2), 114-136.
- Elwork, A., Sales, B. D., & Alfini, J. J. (1977). Juridic decisions: in ignorance of the law or in light of it? *Law and Human Behavior*, 1(2), 163-189.
- Elwork, A., Sales, B. D., & Alfini, J. J. (1982). *Making jury instructions understandable*. Charlottesville, VA: Michie.
- Essex, R. & Goodman-Delahunty, J. (2014). Judicial directions and the criminal standard of proof: Improving juror comprehension. *Journal of Judicial Administration*, 24(2), 75-94.
- Forston, R. F. (1975). Sense and non-sense: Jury trial communic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1975(3), 601-637.
- Fritz, C. O., Morris, P. E., Acton, M., Voelkel, A. R., & Etkind, R. (2007). Comparing and combining retrieval practice and the keyword mnemonic for foreign vocabulary learning.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1(4), 499-526.
- Green, D. M. & Swets, J. A. (1966). *Signal detection theory and psychophysics* (Vol. 1). New York: Wiley.
- Hastie, R. (1983). *Final report to the National Institute for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Unpublished manuscript), Northwestern University, IL.
- Heuer, L. & Penrod, S. D. (1988). Increasing jurors' participation in trials: A field experiment with jury notetaking and question asking. *Law and Human Behavior*, 12(3), 231-261.
- Heuer, L. & Penrod, S. D. (1989). Instructing jurors: A field experiment with written and preliminary instructions. *Law and Human Behavior*, 13(4), 409-430.

- Hope, L., Eales, N., & Mirashi, A. (2014). Assisting jurors: Promoting recall of trial information through the use of a trial ordered notebook.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9(2), 316-331.
- Johnson, C. I. & Mayer, R. E. (2009). A testing effect with multimedia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3), 621-629.
- Kardash, C. M. & Scholes, R. J. (1996). Effects of preexisting beliefs, epistemological beliefs, and need for cognition on interpretation of controversial issu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2), 260-271.
- Karpicke, J. D. & Blunt, J. R. (2011). Retrieval practice produces more learning than elaborative studying with concept mapping. *Science*, 331(6018), 772-775.
- Karpicke, J. D. & Roediger, H. L. (2008). The critical importance of retrieval for learning. *Science*, 319(5865), 966-968.
- Kassin, S. M. & Sommers, S. R. (1997). Inadmissible testimony, instructions to disregard, and the jury: Substantive versus procedural consider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10), 1046-1054.
- Kassin, S. M. & Wrightsman, L. S. (1979). On the requirements of proof: The timing of judicial instruction and mock juror verdi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877-1887.
- Kerr, N. L., Atkin, R. S., Stasser, G., Meek, D., Holt, R. W., & Davis, J. H. (1976). Guilt beyond a reasonable doubt: Effects of concept definition and assigned decision rule on the judgments of mock jur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2), 282-294.
- Larsen, D. P. & Butler, A. C. (2013). *Test-enhanced learning*. pp. 443-452. [http://people.duke.edu/~ab259/pubs/Larsen%26Butler\(2013\)\\_Chapter.pdf](http://people.duke.edu/~ab259/pubs/Larsen%26Butler(2013)_Chapter.pdf)
- Larsen, D. P., Butler, A. C., Lawson, A. L., & Roediger III, H. L. (2012). The importance of seeing the patient: test-enhanced learning with standardized patients and written tests improves clinical application of knowledge. *Advances in Health Sciences Education*, 18(2), 409-425.
- Larsen, D. P., Butler, A. C., & Roediger III, H. L. (2013). Comparative effects of test enhanced learning and self explanation on long term retention. *Medical Education*, 47(7), 674-682.
- Lieberman, J. D. & Sales, B. D. (1997). What social science teaches us about the jury instruction proces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3(4), 589-644.
- Lynch, M. & Haney, C. (2000). Discrimination and instructional comprehension: Guided discretion, racial bias, and the death penalty. *Law and Human Behavior*, 24(3), 337-358.
- McDaniel, M. A., Howard, D. C., & Einstein, G. O. (2009). The Read-Recite-Review Study Strategy Effective and Portable. *Psychological Science*, 20(4), 516-522.
- Meissner, C. A., Tredoux, C. G., Parker, J. F., & MacLin, O. H. (2005). Eyewitness decisions in simultaneous and sequential lineups: A dual-process signal detection theory analysis. *Memory & Cognition*, 33(5), 783-792.
- Murphy, P. & Mason, L. (2006). Changing knowledge and beliefs. In P. A. Alexander & P. H. Winne (Eds.),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 (pp. 305-32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Nickerson, R.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2), 175-220.
- Phelps, R. P. (2012). The effect of testing on student achievement, 1910 - 2010. *International Journal of Testing*, 12(1), 21-43.
- Reifman, A., Gusick, S. M., & Ellsworth, P. C.

- (1992). Real jurors' understanding of the law in real cases. *Law and Human Behavior*, 16(5), 539-554.
- Richardson, V. (1996). The role of attitudes and beliefs in learning to teach. In J. Sikula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er education* (second edition, pp. 102-119). New York: Macmillan.
- Randall, J. (2013) *Plain English Jury Instructions for Massachusetts: first steps*. Paper presented at the Linguistics Society of America Annual Meeting, Boston, MA.
- Randall, J. (2015). *Improving juror comprehension: reading while listening*. Paper presented at the Linguistics Society of America Annual Meeting, Portland, Oregon.
- Randall, J. & Graf, L. (2014). *Linguistics meets "legalese": syntax, semantics, and jury instruction reform*. Paper presented at the Linguistics Society of America Annual Meeting, Boston, MA.
- Roediger III, H. L. & Butler, A. C. (2011). The critical role of retrieval practice in long-term reten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5(1), 20-27.
- Roediger, H. L. & Karpicke, J. D. (2006). The power of testing memory: Basic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racti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3), 181-210.
- Rose, V. G. & Ogloff, J. R. (2001). Evaluating the comprehensibility of jury instructions: A method and an example. *Law and Human Behavior*, 25(4), 409-431.
- Saxton, B. (1998). How Well Do Jurors Understand Jury Instructions-A Field Test Using Real Juries and Real Trials in Wyoming. *Land & Water Law Review*, 33, 59-189.
- Semmler, C. & Brewer, N. (2002). Using a flow-chart to improve comprehension of jury instructions.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9(2), 262-270.
- Severance, L. J., Greene, E., & Loftus, E. F. (1984). Toward criminal jury instructions that jurors can understand.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75(1), 198-233.
- Smith, V. L. (1987). *The psycholog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pre-trial instruction in the law* (Unpublishe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CA.
- Sommers, S. R. & Kassin, S. M. (2001). On the many impacts of inadmissible testimony: Selective compliance, need for cognition, and the over correction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10), 1368-1377.
- Stanislaw, H. & Todorov, N. (1999). Calculation of signal detection theory measure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1(1), 137-149.
- Thorley, C., Baxter, R. E., & Lorek, J. (2016). The impact of note taking style and note availability at retrieval on mock jurors' recall and recognition of trial information. *Memory*, 24(4), 560-574.
- Wiener, R. L., Rogers, M., Winter, R., Hurt, L., Hackney, A., Kadela, K., & Morasco, B. (2004). Guided jury discretion in capital murder cases: The role of declarative and procedural knowledg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0(4), 516-576.
- Wixted, J. & Stretch, V. (2004). In defense of the signal detection interpretation of remember/know/judgments.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11(4), 616-641.

1 차원고접수 : 2020. 03. 20.

수정원고접수 : 2020. 07. 17.

최종게재결정 : 2020. 07. 31.



## The Effects of Pre-test and Preliminary Instruction on The Comprehension of Judicial Instruction

Yuhwa Han<sup>1)</sup>

Kwangbai Park<sup>2)</sup>

<sup>1)</sup>Research Institution for Human Mi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up>2)</sup>KS&P Research Center for Human Behavior and Law

The concern over jurors' legal decisions under poor comprehension of judicial instruction led many legal psychologists to study ways of improving the understanding.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re-test and preliminary instruction on the juror's comprehension of the jury instruction. A total of 137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four experimental conditions (control, pre-test only, pre-instruction only, pre-test & pre-instruction). To analyze the level of comprehension, we compared understanding scores, and signal detection theory (SDT) measures among the conditions. The experimental manipulation was given before the trial scenario. After the scenario, the judge's instruction and the comprehension test were provided in all conditions. Regarding the understanding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evidence,' the significant main effects of pre-test and preliminary instruction were observed. The hit rate and the sensitivity measure were higher when the methods to improve the comprehension of the instruction were presented, while the response bias measure was lowered. However, the improved understanding did not predict the verdict. In discussion, we discussed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and the direction for the juror education to improve the knowledge of jury instruction.

*Key words* : jury instruction, pre-test, preliminary instruction, comprehension, signal detection theory (SDT)

## 부록 1. 배심 설시문

### 판사의 지침

배심원 여러분, 이제 모든 증거조사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적용해야 하는 법률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진 모든 증거들을 평가하여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또한 그 사실에 제가 제시하는 법률을 적용하되, 법률의 적용은 그 법률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동의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증거와 법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해야 하고, 개인적인 선호, 의견, 편견 또는 동정심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지침의 내용들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 중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시하거나 하시면 안되고 지침의 모든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 지침의 내용 또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리야 할 유무죄 판단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은 암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은 오직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피고인 전민영을 기소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살인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단지 혐의에 불과하며, 기소 자체는 증거가 아니고,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증명을 위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란 피고인의 유죄를 확고하게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가능한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란 이성과 상식에 기초한 의심이고 추측에만 의존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은 모든 증거들에 대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생각해 본 후에, 또는 불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증거들에 대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생각해 본 후에도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에 대해 확고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증거들에 대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생각해 본 후에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납득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판단을 위해 당신이 고려해야 하는 증거들은 1) 선서한 증인들의 증언, 2) 증거로 받아들여진 증거물 및 3) 양 당사자측에서 동의한 사실들입니다. 반면에, 1) 양 당사자측의 주장이나 진술, 질문 및 의의, 2) 판사가 무시하라고 요청한 증언 및 3) 법정 내에서 보고 듣지 않은 사실들은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는 직접증거일 수도 있고, 정황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증거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며, 증인이 무언가를 보았거나 들었거나 어떤 행위를 했다는 증언은 직접증거입니다. 정황증거는 간접적인 증거로서, 다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또 다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실들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두 종류의 증거 모두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직접증거와 정황증거의 중요성을 달리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 증거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하려면 자기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행동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했으면서도 그 사망의 결과를 용인하면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고의가 인정된다면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만일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부록 2. 이해도 측정 문항

문항 내용
1. 합리적 의심은 배심원의 상식에 기초하는 것이다.
2. 배심원은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가능성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3. 사실은 정황증거에 의해서도 증명될 수 있다.
4. 사건 당일 피해자는 새벽 3시경에 귀가하였다.
5.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6. 당신의 이웃 집에 커튼이 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가정하자. 몇 분 후에 다시 보니 커튼이 열려있고, 불이 켜져 있다. 누군가가 집 안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결론은 정황증거에 기초한 결론이다.
7. 합리적 의심은 증거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결론에 기초해서는 안되고, 법정 안에서 제시된 증거들 그 자체에만 기초해야 한다.
8. 피고인은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무서운 친구로 소문이 나 있다.
9. 무언가를 보았다는 증인의 진술은 직접 증거이다.
10.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려면, 당신은 피고인의 유죄를 100%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11.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범행도구로 쓰인 식칼을 빼앗아 싱크대에 올려두었다.
12. 법은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의 무죄를 가정한다.
13. 피고인은 증거에 기초하여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14.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죄를 배심원 각자의 상식적 기준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한다.
15. 양 당사자측의 질문에 대한 이의는 증거가 아니다.
16. 피고인의 행동이 누군가의 죽음을 유발했다면, 그 죽음이 사고였고 전혀 의도되거나 예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피고인을 살인죄로 유죄판결 할 수 있다.
17. 어떤 증인의 신빙성 즉 그 증인이 믿을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법에 따라 결정한다.
18.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피고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19.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린 적이 없다.
20. 검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면, 피고인도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21. 재판에서 제시된 증언은 판사가 그 증언을 무시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도 여전히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2. 피해자가 귀가했을 때, 피고인은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
23. 살인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의도했는지 여부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서 피해자가 죽었는지 이다.
24.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과 유죄일 가능성이 동일하다면 배심원들은 무죄판단해야 한다.
25. 피고인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해 편견없이 판단하는 것이 배심원의 의무이다.
하위요인별 문항 번호: 시나리오 내용(4, 8, 11, 19, 22), 합리적의심(1, 2, 7, 10, 14), 무죄추정(12, 24), 입증책임(13, 20), 배심원의무(17, 25), 증거(3, 6, 9, 15, 18, 21), 살인고의성(5, 16, 23)